
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

2021. 2.



요약

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주요내용 [요약본]

1. 4년 추진성과와 평가

- ◇ '17년 중기부 출범 후 중소·벤처·소상공인의 독립된 정책영역 구축
- ◇ '20년에는 「[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, 스마트대한민국](#)」 비전을 설정
→ 중소·벤처·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 주역화 추진

① 혁신 벤처 · 스타트업이 경제주역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견인

- ❶ (역대 최대 창업 및 유니콘 증가) '20년 역대 최대 법인창업을 달성하였고, 유니콘 기업이 '17년 3개에서 '20년 13개로 대폭 증가
* 신설법인(만개) : ('17) 9.8 → ('18) 10.2 → ('19) 10.9 → ('20) 12.3
- ❷ (비대면·디지털 분야 선도)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신설('20. 1.3조원), 「K-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」 ('20.11) 등 육성체계 마련
- ❸ (벤처스타트업으로 고용의 축 이동) '20년 벤처기업은 코로나 위기였던 작년 한해 동안 약 5.3만명 일자리를 창출
* 벤처기업 고용 : '19년 12월말 67.1만명 → '20년 12월말 72.4만명(+5.3만명, +7.9%)
- ❹ (주식시장 제2벤처 봄 및 역대 최대 벤처투자) 벤처·유니콘기업이 코스피 3000, 코스닥 1000 주역으로 부상하고, 역대 최대 벤처투자 달성('20. 4.3조원)
* (코스닥 : 상위 20위 내 벤처기업 수) ('01) 6개 → ('20) 13개

② '스마트 대한민국' 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

- ❶ (디지털 제조혁신) '20년까지 스마트공장 약 2만개를 구축하고,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등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추진
- ❷ (혁신중소벤처기업이 수출 베풀목)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 비중 증가('17. 18% → '20 19.7%), 온라인 수출 106% 급증('20, 전년비) 등
* '브랜드K' 제품 133개 지정 → 브랜드K 선정기업의 '20년 수출액이 전년비 36.6% 증가

③ 소상공인 디지털화 및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

- ❶ (소상공인 디지털화) 스마트상점·공방·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디지털 · 온라인 전환 기반 구축('20.9, 「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」)
* (스마트슈퍼 1호점) 일평균 매출 32.6%, 심야 매출(21시~07시) 53.1% 증가
- ❷ (소상공인 위기극복 대응) 범부처 협업을 통해 새희망자금 개시 3일만에 184만명을 지원하고, 긴급대출 절차 간소화(4주 → 3일) 등 적극행정 구현
- ❸ (소비촉진 통한 자생력 제고) 4조원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, 「대한민국 동행세일」('20.6월), 「크리스마스마켓」('19, '20.12월) 등 추진

④ 자상한기업 등 대·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협력의 길 마련

- ❶ (자상한 기업)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(~'20. 25개) → 중소·벤처·소상공인에 대한 투자·금융·판로·디지털화 등 122조원 지원 약속
- ❷ (상생협력 기반 확충) '상생조정위원회' 구성·운영('19.6 출범 20건 조정), 상생결제 500조원 돌파('15~'20 누적),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('19.1) 등

⑤ 새로운 혁신생태계 – 규제자유특구, 소부장·BIG3 육성 박차

- ❶ (규제자유특구) 24개 특구를 지정하여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 → 투자유치(6,757억원), 일자리(1,255개), 기업이전(162개) 등 가시적 성과 창출
 - * 실증이 진전됨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, 특히 출원 등으로 매출 및 수출기회 확대 등
 - ❷ (소부장)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'소부장 강소기업 100', '소부장 스타트업 100', '소부장 상생모델' 선정·집중 지원
 - * 선정기업들이 창출한 성과를 사회에 환원키로 선언('20.6, "함께성장 마중물 선언식")
 - ❸ (BIG3) 셀트리온 등 국내 혁신기업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업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'BIG3 유망기업 250' 육성
- ◇ (향후 개선사항)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, 벤처·스타트업이 주역인 선도형경제 구현, 전통중소기업 혁신 등을 이루고,
 - 국민과 중소·벤처·스타트업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본격화 추진

2. 업무 추진방향 및 2021년 핵심 추진과제

비 전

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·벤처·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경제

① 소상공인 경영회복

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키는 지원체계 마련

② 선도형경제 주역화

벤처·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

③ 디지털화·저탄소화·지역혁신

디지털화, 저탄소화,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

④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

'연대와 협력'으로 상생경제 확산

⑤ 내부혁신

'현장·소통 중심' 적극 행정 구현

[1]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추진

[1]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안정화시스템 확충

- ❶ (소상공인 베풀목자금 지원) 소상공인의 매출급감 등 긴급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금 4.1조원 신속 지급 협업
- ❷ (임차료 특별융자)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저금리(1.9%) 융자 1조원, 집합제한 업종 2~3%대 융자 3조원 등 총 4조원 공급
- ❸ (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)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 강화(50→70%), 정책금융 융자* 지원, 민간 협단체와 공동 홍보·캠페인 전개 협업
* (현행) 부동산업은 지원대상 제외 → (개선) 착한임대인은 한시적으로 포함

[2]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한 피해 지원 적극 검토 협업

- 관계부처와 협업하여,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적극 검토
* 집합금지·영업제한 등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법제화 추진('21.상)

[3]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 지원 뉴딜

- ❶ (소상공인 안전망 확충) 폐업·재기단계 세무·법률 자문('21. 4천건),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폐업부담 경감
- ❷ (취업·재창업 지원)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*을 확충하고, 재창업자 사업화자금도 신설('21. 1,200명, 최대 1천만원)
* 예시) LH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지원 등

[4] 소상공인의 일터(상권) 활력 제고를 위한 상권회복 프로젝트 추진

- ❶ (소상공인·전통시장 스마트화) 소상공인·전통시장에 디지털기술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, 경영·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뉴딜

구 분	주요 내용
스마트 상점	·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점을 본격 확산('21. 2만개), 최신 스마트기술 전시 등 모델샵도 추가 구축('21. 1곳)
스마트 슈퍼	· '20년 성공적 시범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·사후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체계 확립 및 확산('21. 800개)
디지털 전통시장	· 대면 판매 중심인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송 서비스 도입, 무선결제, VR 지도 구축 등 지원('21. 100곳)
디지털 상권르네상스	·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, 온라인 판매, 복합 체험판매 라운지를 패키지로 지원('21년 1곳, '22년 2곳 선정)

- ② (내수 촉진 기반 확충)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(2.5→3조원, 본예산 기준), 「지역상권법」 제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
- ③ (소비촉진) 동행세일, 크리스마스마켓에 문화를 접목하여 대한민국 대표 소비축제로 확장 협업 *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, 별도계획 수립
- ④ (구독경제 접목)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 후 정기 배송하는 (가칭)‘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방안’ 마련(21.3월)

[2] 벤처 ·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

[1] 디지털 · 비대면 · 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붐 활성화

- ① (디지털·비대면 경제) K-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, K-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벤처 4대강국 구현 뉴딜 협업 * (K-비대면)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('25년까지 1,000개) →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 (K-유니콘) ‘아기유니콘 → 예비유니콘 → 유니콘’으로의 성장 생태계 조성 ('21.1~)
- ② (그린 경제)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(~'22, 100개),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을 통해 그린경제를 주도하는 벤처·스타트업 육성 뉴딜 협업
- ③ (혁신 창업 인프라 등 확충) BIG3 및 D.N.A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, 제조창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('21. 상) 등 인프라 구축
- ④ (청년창업 활성화 등 기반 확충)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등 구축 협업 * 창업자금 + 지원프로그램 + 창업인프라 등 분야별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체계 마련 등

[2] 적극적 마중물 공급 등을 통한 벤처투자붐 촉진

- ① (스마트대한민국펀드) '20년 1.3조원에 이어 '21년 1조원을 추가 조성 하여, 비대면·바이오·그린뉴딜 기업에 집중 투자('25년까지 총 6조원 조성 목표)
* ('21년 조성방향) 비대면, 바이오, 그린뉴딜 등 중심
- ② (벤처투자 환경 고도화) 실리콘밸리식 금융(투자조건부 융자) 도입을 추진하고,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추진
* 벤처투자 표준 계약서 마련·보급 등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('21.상)

[3] '브랜드K' 등을 통한 중소·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도모

- ① (브랜드K)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'브랜드K'의 인지도 제고, 판로 지원 등을 통해 국내·외 입지(브랜드 파워) 강화 협업
- ② (비대면·온라인 등) K-방역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·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고, 국적해운선사 선박에 수출 물량 우선 배정 등 추진

[3] 디지털화, 저탄소화,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

[1] 인공지능·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화 등 스마트제조혁신

- ① (디지털화 촉진 인프라) 인공지능 제조플랫폼과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, 제조혁신법 제정 등 기반 확충 뉴딜
- ② (스마트공장 선도모델)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+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,000개, K-스마트등대공장 100개 구축(~'25) 뉴딜
* K-스마트등대공장 : 5G+인공지능 융합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선도형 공장

[2] 글로벌 제조공장의 저탄소 공정혁신 및 신사업전환혁신 기반 확충 탄소

- ① (저탄소 공정혁신) 탈탄소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린뉴딜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법을 마련하고, 공정혁신 금융지원 강화(0.6조원 목표)
- ② (사업전환·재도약) 중소기업의 新사업 개척을 지원하고,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(유동성 공급·컨설팅 등 경영안정화 지원)

[3]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기술·신사업 창출 촉진

- ① (특구제도 안착화) 1·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종료*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, 임시허가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
* 1·2차 특구 39개 사업의 실증특례가 '21년 하반기(8월, 12월)에 각각 종료
- ② (신규지정) 디지털·그린 등 국가정책과 연계(Top-down)한 방식을 병행하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('21년 2회) 뉴딜 탄소
* 저탄소·친환경특구를 20개로 확대(~'25) → 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 기술 실증 등 선도적 역할 수행

[4] 지역주력산업·지역선도기업 육성 등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

- ① (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) 시·도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분야 유망 기업 100개사 선정('21~'22) → R&D,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
- ② (혁신 인프라 확충)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펀드를 조성하고, 지역가치창업가(로컬크리에이터) 육성·발전 전략 마련('21.3월)

⑤ 현장수요와 뉴노멀에 대응한 중소기업 혁신 지원

- ❶ (현장수요·뉴노멀 진출 지원) B2B, B2G 지원을 강화하고,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몰 통합관리 지원을 고도화
- ❷ (공공구매제도 혁신)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본격 시행(21.1월)하고,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개편(21.2분기) 등 공공구매제도 혁신

④ '연대와 협력'으로 상생경제 확산

①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기반 확충 협업

- ❶ (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)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모범적 모델을 발굴·확산 추진
- ❷ (사업영역 보호)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·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
- ❸ (상생협력 기반 확충)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(21~'25년), 동반성장 평가체계 개선 등 상생협력 기반 강화 협업

② 혁신 분야 자상한기업 발굴 및 소재·부품·장비 상생협력 등 강화 협업

- ❶ (자상한기업) 비대면·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 → '자상한 기업' 협약 체결
 - ❷ (소부장 상생협력) 대·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 확대를 위해 R&D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고,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*
- * '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'를 통해 친환경 관련 소부장 국산화 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(21.상)

③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촉진

- ❶ (플랫폼 고도화) "민간 주도·협력형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지원시스템"으로 확장을 위한 5대 대-스타 플랫폼 핵심체계* 구축(21.상)
* 5대 핵심체계(안) : ①혁신경제, ②프로토콜경제, ③서민경제, ④공정·상생경제, ⑤조달경제
- ❷ (플랫폼 인프라 확충) 플랫폼의 체계적·지속적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(21.상), 모델 다양화 및 상시 문제해결시스템 구축

④ 플랫폼과 동행하는 프로토콜(Protocol) 경제로 공정한 혁신생태계 구현

- 프로토콜 경제의 기본원칙*을 토대로 4대 선도모델 정립 및 창업·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'프로토콜경제 발전전략' 마련(21.상)

* 3대 기본원칙 : 정보 분산(탈중앙, 분권형) + 증개비용 최소화 + 합의된 규칙

[5] 주요 노동이슈 중소기업 현장안착 맞춤형 지원 협업

- ❶ (주52시간제) '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' 구성(관계부처 등 협업)
→ 현장 애로에 대한 1:1 맞춤형 정책 연계
- ❷ (안전한 기업현장 조성)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, 산업재해 예방 교육·컨설팅 강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

[5] '현장·소통 중심' 적극행정 구현

- ❶ (현장·소통 중심의 성과점검)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, 현장 안착여부 등 점검·확인
- ❷ (국민추천제 활성화) 당사자가 지원사업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함께,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 추천 병행(적용 사업 : ('20) 10개 → ('21) 15개)
- ❸ (캐주얼데이 운영)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「캐주얼데이(Casual Day)」로 지정·운영('21.3월)
*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

3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

[1] 소상공인의 경영이 회복되고, 스마트상점·전통시장이 나타납니다

- 소상공인의 경영이 회복·안정되고, '21년 스마트상점 2만개(~'25. 10만개), 디지털전통시장 100개(~'25. 500개)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익성 등 제고

[2]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타나고, 대한민국이 세계 벤처4대강국 진입으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합니다

-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 100개(~'25), 비대면 예비유니콘 700개(~'25) 등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기업 육성

[3] 지역에서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고 전통중소기업이 성장합니다

- '21년 스마트공장 약 2.4만개 보급(누적, ~'22. 3만개),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 제고

“우리의 일상을 바꾼 비대면 혁신 벤처·스타트업”

- 서울 원룸에서 혼자사는 1인 가구 김씨는 얼마전까지만해도 빨래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다. 최근 후 늦은 시간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고민, 드라이 크리닝을 해야하는 옷들을 제때 세탁 못하는 것도 고민이었다.
- 그러다 며칠 전,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스타트업 R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든 고민이 없어졌다. 이 비대면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 그리고 문밖에 빨래를 놔두기만 하면,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 다시 집 앞으로 배송되기 때문이다.
- ‘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200 사업에 선정된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R사는 ‘19.3월 서비스 런칭 이후 235억원 투자유치, 1년 6개월만에 1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. ’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「K-비대면 글로벌 혁신 벤처 100 프로젝트」를 통해 비대면 혁신 벤처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.

“스마트공장으로 K-방역 세계화에 도전하다”

- A사는 2020년2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빨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다. 그러나 해외의 진단키트 주문 폭주에도 불구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으로는 물량을 맞추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.
 - 이에, 긴급히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였고, 100% 국산 기술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여 생산성 증가율 1,233%라는 획기적인 성과*를 올렸으며,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, ‘19년 대비 10배 이상 매출을 올렸다.
- * (도입효과) 생산성 증가율 1,233%(주당 3천키트→4만키트), 라벨부착시간 감소율 80%(20hr→4hr), 검사시간 감소율 86%, 재고관리 정확도 증가율 25%p, 물류동선 감소율 34%
-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하여, ’22년까지 누적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.

“3시간 만에 입금, 속도에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”

-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수도권 내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받았다. 매출이 2020년 10월에 50%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12월부터는 아예 수입이 없어졌고, 월 110만원씩 나가는 임차료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다.
-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B원장은 정부가 베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신청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을 한 후 크게 놀랐다. 베팀목자금을 신청한지 불과 3시간 만에 3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.
- B원장은 “최근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우울했는데, 베팀목자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. 무엇보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한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다”라고 밝혔다

“스마트슈퍼로 바꾸니, 매일 아침 보너스 받는 기분입니다”

- 아내와 함께 둘이서 조그만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60대 소상공인 최씨는 스마트슈퍼*로 전환한 뒤,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다.
* (스마트슈퍼) 무인 출입장비, 무인 계산대,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·장비를 도입하여 낮에는 유인,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
- 주인이 퇴근하고 없는 심야시간에는 신용카드로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고른 후 스스로 계산대에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비대면 소비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20~30대 손님들이 많아져 이용고객층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었다.
- 이 동네 슈퍼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하루 평균 매출이 32.6% 증가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‘20년 시범 운영한 5개 스마트슈퍼의 성과를 바탕으로, ’21년부터 연간 800개 동네슈퍼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.

본 문



목 차



I . 4년 추진성과와 평가	1
II . 2021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6
III .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추진과제	8
1.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	9
2. 벤처·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	13
3. 디지털화, 저탄소화,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	16
4. '연대와 협력'으로 상생경제 확산	20
5. '현장·소통 중심' 적극행정 구현	23
IV 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24
【별첨 1】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	25
【별첨 2】 4년간 성과 및 20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..	28

I. 4년 추진성과와 평가

- ◇ 2017.7월 중기부 출범 후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촉진, 소상공인·자영업의 독립된 정책영역화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(~'19년)
- ◇ 2020년에는 「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, 스마트대한민국」 비전을 설정 → 중소·벤처·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 주역화 추진

① 혁신 벤처·스타트업이 경제주역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견인

- ① (유니콘 등 혁신기업 육성) 혁신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체계*를 운영하고, 혁신벤처의 성장을 위해 「K-유니콘 프로젝트」('20.4) 추진

*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, Google·Microsoft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하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,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"컴업 2020" 추진 등

⇒ '20년 역대 최대 법인창업을 달성하였고, 유니콘 기업이 '17년 3개에서 '20년 13개로 대폭 증가(미국 CB insights 등재 기준 11개, 세계 6위)



* (참고) 유니콘기업 요건을 충족하나 아직 美 CB insights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 등 포함 시 총 13개

- ② (비대면·디지털 분야 선도)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신설('20. 1.3조원), 「K-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」 ('20.11) 등 국내 비대면·디지털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육성체계 마련

사례

- 비대면 혁신벤처(런드리고) : 국내 최초의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오픈, '19.3월 서비스 런칭 이후 235억원 투자유치, 1년 6개월만에 100명 신규 고용 창출('20. 아기유니콘200 선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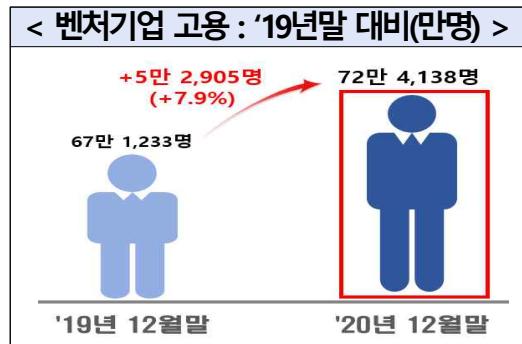
- ③ (벤처투자 등 역대 최대)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 편성('17. 0.97조원 → '20. 1.3조원)하고,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3대 법률 정비

* ① 벤처투자법 제정('20.8 시행), ②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('20.12 공정 거래법 개정), ③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추진('20.12~, 벤처기업법 개정)

⇒ '20년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 4.3조원 달성 및 벤처펀드 신규결성도 6.6조원(전년비 2.3조원 증가)으로 최초 6조원 돌파

- ④ (벤처스타트업으로 고용의 축 이동) '20년 벤처기업은 코로나 위기에도 작년 한해 동안 약 5.3만명 일자리*를 창출

* 벤처기업 고용 : '19년 12월말 67.1만명 → '20년 12월말 72.4만명(+5.3만명, +7.9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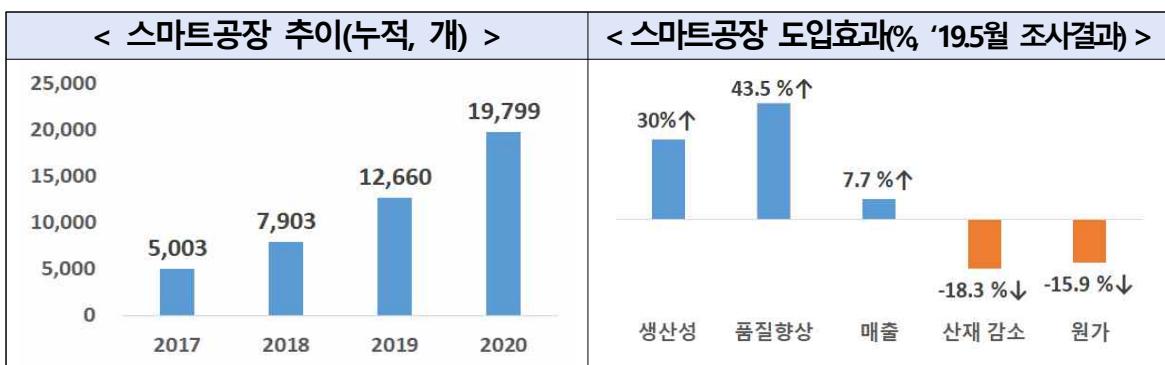
- ⑤ (주식시장 제2벤처 봄) 벤처·유니콘기업이 코스피 3000, 코스닥 1000 주역으로 부상

구 분	주요 성과
코스닥	상위 20위 내 벤처기업 수 : ('01) 6개 → ('20) 13개(코스닥 전체 시총(약 359조원)의 약 12.4% 차지)
코스피	상위 20위 내 벤처기업 수 : (~'10) 없음 → ('20) 셀트리온, NAVER 등 벤처기업 출신 4개사가 20위내 자리매김

2 '스마트 대한민국' 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

- ① (디지털 제조혁신) '20년까지 스마트공장 약 2만개를 구축하고,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등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추진

*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전략('18.12), 인공지능·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('20.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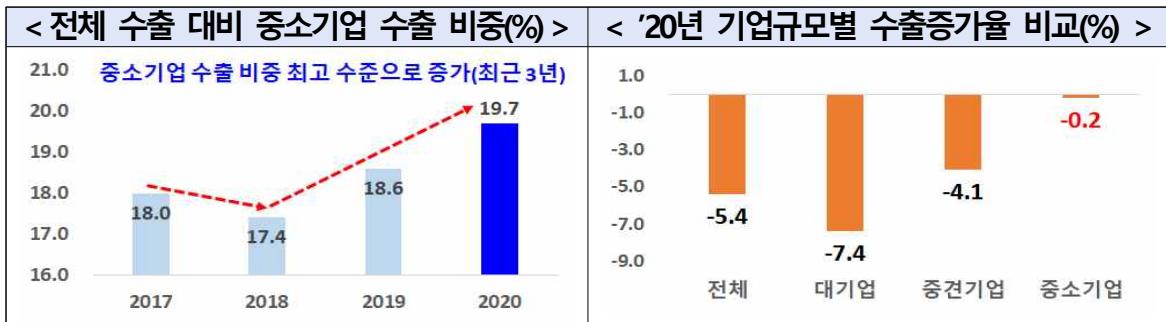
- ② (혁신중소벤처기업이 수출 버팀목)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'브랜드K' 제품을 133개 지정하고, 화상상담회 등 비대면·온라인 중심의 수출지원체계 구축



⇒ 전체 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('17. 18% → '20. 19.7%)하고, 브랜드K 수출 증가, 온라인 수출 106% 급증 등 중소기업 수출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

* 브랜드K 선정기업의 '20년 수출액이 전년비 47.7%(1기 선정), 36.6%(2기 선정) 증가

**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증감률(%), 전년비) : ('19) 46.0 → ('20) 106.3



③ (중소기업 R&D 2조원 시대) 중소기업 전용 R&D를 확대하고, 투자형·후불형 R&D 도입('20.7월)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

*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전용 R&D 확대 : ('17) 1.1조원 → ('21년 목표) 2.1조원

* 중기부 R&D 규모(억원) : ('17) 11,172 → ('18) 10,917 → ('19) 10,744 → ('20) 14,885 → ('21) 17,229

3 소상공인 디지털화 및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

① (소상공인 디지털화) 스마트상점·공방·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디지털·온라인 전환 기반 구축('20.9, 「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」)

*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도입('19.1월) → '20.12월말 기준, 간편결제 결제액 1.2조원 및 가맹점수 73만개 달성 등 활성화

사례

- (당초) 부부가 운영하는 60㎡의 소형 동네슈퍼로, 영업시간은 09시~24시로 하루 15시간 운영
- (디지털전환) 스마트슈퍼 전환('20.9.28) 후 일평균 매출 32.6%, 심야 매출(21시~07시) 53.1%증가



⇒ 온라인·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등 생업현장에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확인

② (소상공인 위기극복 대응)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속 지원 및 긴급금융 공급, 재기지원체계 구축

구 분	주요 추진내용
새희망자금	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'새희망자금'(3.3조원) 신설·지급
적극적금융	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"1천만원 긴급대출" 도입('20)
재기지원	'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'(0.1조원), 소상공인의 업종전환·재창업 등 재기 지원

⇒ 범부처 디지털협업을 통해 새희망자금 개시 3일만에 184만명을 지원하고, 긴급대출 절차 대폭 간소화(대출 소요 4주 → 3일) 등 적극행정 구현

※ (새희망자금 관련 대통령님 SNS메시지, '20.10.7) "국세청, 건강보험공단의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상자 선별에 대해 전례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력"

- ③ (소비촉진 통한 자생력 제고) 4조원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, '대한민국 동행세일'('20.6월), '크리스마스마켓('19~20.12월)' 등 추진
- * 기존의 오프라인 판촉 행사에서 벗어나,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·온라인 판로 접목
 - 소상공인·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'소상공인 기본법'을 제정(21.2 시행)하고,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추진



4 자상한기업 등 대·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협력의 길 마련

- ① (자상한 기업)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(~'20. 25개) → 중소·벤처·소상공인에 대한 투자·금융·판로·디지털화 등 122조원 지원 약속
- * 다보스포럼(WEF, '20.1)에서도 '자상한 기업' 정책을 포용적인 성장모델로 평가

①네이버-소상공인연합회('19.5)	②포스코-벤처캐피탈협회('19.5)	③신한금융그룹-벤처협회('19.6)
④국민은행-외식업중앙회('19.8)	⑤우리은행-여성경제인협회('19.8)	⑥소프트뱅크벤처스-KVIC('19.9)
⑦삼성전자-중기중앙회('19.10)	⑧하나은행-연세대-이노비즈('19.11)	⑨철도시설공단-여성벤처협회('19.11)
⑩현대기아차-자동차협동조합('19.12)	⑪한국항공우주산업(KAI)-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('20.2)	
⑫ARM-서울대-벤처기업협회('20.4)	⑬스타벅스-프리즘-AC협회('20.5)	⑭SKC-코스포('20.5)
⑮LG상사-무역협회('20.7)	⑯기업은행-중기중앙회('20.8)	⑰KT-이노비즈협회('20.9)
⑯SGI서울보증-메인비즈협회('20.9)	⑰프레시지-백년기계협의회('20.10)	⑱수지원공사-VC협회-AC협회('20.11)
㉑비자-쇼피파이-온라인쇼핑협회('20.11)	㉒NA-중소기업중앙회('20.11)	㉓CJ ENM - 대중소재단('20.12)
㉔컬리-전국상인연합회-AC협회('20.12)	㉕이마트-백년기계협의회('20.12)	

- ② (상생협력 기반 확충) 불공정거래 사건 조정·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'상생조정위원회' 구성·운영('19.6 출범, 20건 조정 완료)

사례

- 상생조정위원회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: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조정 관련 분쟁을 조정신청 후 43일만에 6% 인상 합의(영업이익 연 2억원 증가)

- 상생결제 500조원 돌파('15~'20 누적),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('19.1) 등
 - *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기업의 85.7%가 납품대금 인상 합의 도달('20.4)

- ③ (중소기업·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)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('18.12월 시행) 및 사업조정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

- * 생계형 적합업종('20.12, 누계) : 신청 26건 → 지정 10건, 자율협약 10건
- * '20년 사업조정 종결 26건 중 상생협약 15건(58%), 조정권고 3건, 반려 8건

5 새로운 혁신생태계 – 규제자유특구, 소부장·BIG3 육성 박차

- ① (규제자유특구) 그간 총 4차례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 → 일자리, 투자유치, 기업이전 등 가시적 성과 창출

구분	주요 성과
투자유치	경북(배터리리사이클링), 전남(e-모빌리티), 충북(스마트안전제어) 등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6,757억원 기록
일자리창출	최초 특구 지정('19년) 이후, 실증을 추진중인 특구 내 혁신기업이 1년간 1,255개(중소기업이 74%) 지역 일자리 창출
기업이전	미국 자율차 전문기업(→세종), 대용량 배터리팩 생산 기업(→경북) 등 유망기업의 특구로 이전(신규 162개사)

⇒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모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됨으로써,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구축

* 실증이 진전됨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, 특히 출원 등으로 매출 및 수출기회 확대 등

- ② (소부장)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'소부장 강소기업 100', '소부장 스타트업 100', '소부장 상생모델' 선정·집중 지원

⇒ 소부장 강소기업·스타트업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, 선정 기업들이 창출한 성과를 사회에 환원키로 공동 선언*

* 함께성장 마중물 선언식('20.6월), 소부장 엔젤투자펀드 조성 MOU('20.11월) 등

- ③ (BIG3) 셀트리온 등 국내 혁신기업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업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'BIG3 유망기업 250' 육성

사례

- (엔비디아, 글로벌 반도체 기업) 바이오헬스,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의 기술개발·상용화·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'N&UP' 프로그램 도입
- (셀트리온, 국내 혁신 바이오기업) 인천 송도 스타트업파크 신설에 적극 참여 → 국내 바이오 특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



- ◇ (예산·조직) 스마트공장·상점·서비스 등 중소·벤처·스타트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체계 개편 및 지속 확대

*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 : (17) 8.5 → (18) 8.9 → (19) 10.3 → (20) 13.4 → (21) 16.8

- 비대면경제과(20.5) 등 디지털경제와 혁신성장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

* '규제자유특구기획단'('19.5), '미래산업전략팀'('19.7), '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'('20.1) 등

- ◇ (향후 개선사항)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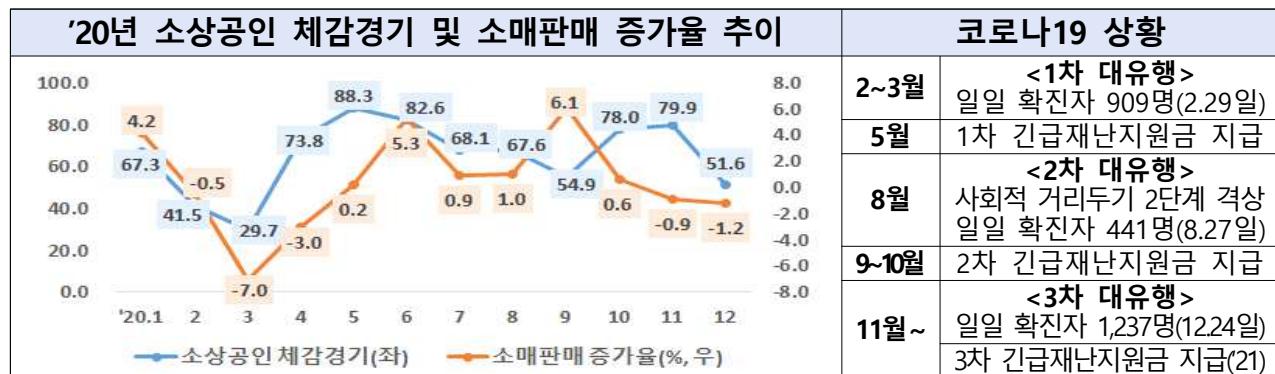
- 벤처·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디지털·비대면·그린 등 선도형경제와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으로 성과창출 본격화 필요

II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대·내외 업무추진 여건

①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동향 : 개선 요인과 불안 요인이 상존

- ① (소상공인) '21년 재난지원금 지원, 백신 접종 본격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,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간 내 회복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



- ② (창업·벤처) '20년 비대면·디지털 등 유망 분야 중심으로 신규창업과 벤처투자가 이어졌으며, '21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

* 창업기업 증가율(전년비, '20년) : (정보통신업) 21.2%, (전문·과학·기술) 17.2%

** 벤처투자(전년비, '20.1~9월) : 전체 △8.7% ↔ 비대면 분야 △1.0%

- ③ (중소기업) '21년 세계 교역의 증가('20^e) △9.2% → ('21^e) 7.2% 등으로 수출과 생산 회복이 기대되나 불안요인 상존

* 전체 수출증가율 / 중소기업 수출증가율(%) : ('19) △10.4 / △4.1 → ('20.1/4) △1.9 / 1.7 → (2/4) △20.3 / △13.7 → (3/4) △3.4 / 3.6 → (4/4) 4.2 / 7.9

** 전체제조업 생산증가율 /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율(%) : ('19) 0.1 / △2.9 → ('20.1/4) 5.5 / △1.2 → (2/4) △5.2 / △10.3 → (3/4) 1.1 / △2.6 → (4/4) 0.6 / △4.5

② 세계 주요국 동향 :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전망

- ① (디지털경제) 디지털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전략 마련, 국가 발전 계획의 핵심과제로 디지털화 제시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
- ② (그린경제) 친환경에너지 등 친환경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, 탄소중립 목표설정 등 그린경제를 통한 혁신 준비

국가	주요 내용
	· 조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인프라에 4년간 총 2조불 투자와 취임 즉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등 약속
	· 2050 탄소중립 목표로 '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자하는 유럽 그린딜 발표('19.12) /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 디지털 전략 발표('20.2)

2. 업무 추진방향

- ◇ (문재인 정부) 국력을 결집해 추진하는 '한국판 뉴딜'과 '2050 탄소 중립' 전략으로 디지털·그린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
 - 김대중 정부 → 노무현 정부 → 문재인 정부로 이어오며, 우리나라를 디지털강국 등 선도국가로 만드는 기틀을 마련
 - * (김대중 정부) 초고속 인터넷망의 전국화 / (노무현 정부) 전자정부·ICT강국 추진
- ◇ ('21년 중기부 역할)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디지털화, 중소·벤처·스타트업의 선도형경제 주역화, 전통중소기업의 혁신 등 추진
⇒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및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

① 코로나19 대응,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, 디지털 전환 본격화

-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에 적극·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체계 확충 →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추진
- 스마트상점·슈퍼·공방 및 디지털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추진하고, 온·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자생력 제고

② 중소·벤처·스타트업을 디지털·그린 등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

- 선도형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벤처·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, 인공지능·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추진
- 플랫폼경제의 문제를 보완하는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,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벤처·스타트업 육성

* **프로토콜(Protocol) 경제** :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, 탈중앙화·탈독점화·분권화를 이루고 합의된 규칙 하에 참여자 모두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"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시스템"

③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

-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기업 혁신플랫폼을 활성화하고, 굴뚝 제조공장의 공정혁신·사업전환 등 전통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촉진

III. 2021년 핵심 추진과제

비 전

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·벤처·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

5대 핵심 정책방향

① 소상공인 경영회복

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
회복시키는 지원체계 마련

② 선도형경제 주역화

벤처·스타트업을
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

③ 디지털화·저탄소화·지역혁신

디지털화, 저탄소화, 지역혁신을
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

④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

'연대와 협력'으로
상생경제 확산

⑤ 내부혁신

'현장·소통 중심' 적극 행정 구현

[1]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추진

개요

- 베톤목자금, 긴급대출 등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, 손실보상제 마련 적극 검토
- 폐업·재기 소상공인 지원 등 안전망을 구축하고,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·전통시장 스마트화, 지역상권법 제정 등 추진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안정화시스템 확충

① (소상공인 베톤목자금 지원) 소상공인의 매출급감 등 시급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직접지원금 4.1조원 신속 지급 협업

* 새희망자금 집행 경험을 토대로 신속지급체계 구축 → 설 이전 지원대상의 90% 이상 지급(목표)

구분	집합금지업종	집합제한업종	일반업종	합계
지원금액	300만원	200만원	100만원	1~3백만원
재정소요	0.7조원	1.6조원	1.8조원	4.1조원
대상 수	24만명	81만명	175만명	280만명

② (임대료 부담 경감) 임대료 목적 긴급융자 4.0조원* 공급, 착한임대인 세제 확대(50→70%)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** 등 인센티브 강화 협업

* 소상공인 정책자금 1.0조원 + 신보 3조원 특례보증(5년간 보증료 0.3~0.9%p 경감)

** (현행) 부동산업은 지원대상 제외 → (개선) 착한임대인은 한시적으로 포함

③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 시스템화 협업

- (1천만원 긴급대출 도입) 대규모 재난 등 발생 시 경영안정자금 (2.4조원)을 활용, 1천만원 긴급대출 프로그램 가동

- (비대면 대출 시스템) Info-Box* 도입,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신청 창구 구축으로 대출소요일을 기존 20일 → 3일로 대폭 단축('21.4월)

* 수요자 동의 후 신용등급 등 대출 관련 주요 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정보화 시스템

- (법적 기반 마련)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진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('21.상)

[2]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한 피해 지원 적극 검토 협업

- 관계부처와 협업하여,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적극 검토
 - * 집합금지·영업제한 등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법제화 추진('21.상)

[3]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 지원

- ❶ (폐업·재기지원)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,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도록 민간·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원 강화 뉴딜

- (희망리턴패키지) 폐업·재기단계 소상공인에 세무·법률 자문 및 취업·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

* (세무·법률 자문) '20년 3천건 → '21년 4천건 / (재창업 사업화) '21년 1,200건 신규 지원

- (민간협업 재기지원) 재기지원 교육 이수자 등에 대해 민간·공공 기관과 연계한 사업 노하우 전수, 취업·재창업 기회 제공

* LH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지원 등

사례

•민간 협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 ('20.하)

- (개요)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에 커피 트렌드, 위생, 손익구조 관리, 매장 운영 등 민간기업 노하우 전수
- ('20년 성과) 99명 선정, 28명 바리스타 채용



- ❷ (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*) 고용보험(고용부)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(중기부)이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홍보 강화 협업

* 1인 자영업자 보험료의 30~50%를 최대 3년간 지원 ('21. 1.3만명 목표)

[4] 소상공인의 일터(상권) 활력 제고를 위한 상권회복 프로젝트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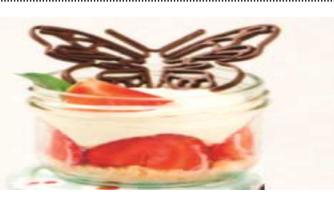
- ❶ (소상공인·전통시장 스마트화) 소상공인·전통시장에 디지털기술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, 경영·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뉴딜

- (스마트상점)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점을 본격 확산 ('21. 2만개), 최신 스마트기술 전시 등 모델샵도 추가 구축('21. 1곳)

< 참고 : 스마트상점 성공 사례 >



치킨 튀김용 로봇 (치킨점)



초콜릿 3D프린터 (카페)



스마트 미러 (미용실)

- (스마트슈퍼) '20년 성공적 시범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·사후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체계* 확립 및 확산('21. 800개)

* (1단계) 상권분석 및 점포 진단 → (2단계) 무인슈퍼 기술·장비 도입 → (3단계) 스마트기술 활용기법 교육 → (4단계) 성과관리 및 점포 경영지도 등

- (스마트공방) 수작업 중심 소공방에 자동화 설비, 데이터 수집·연계 등 스마트기술을 보급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('21. 600개)

- (디지털 전통시장) 대면 판매 중심인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송 서비스 도입, 무선결제, VR 지도 구축 등 지원('21. 100곳) **뉴딜**

*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지원·관리하는 전문가 '디지털 매니저'를 매칭하고,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택배상품 발굴 등 마케팅 연계

** 모바일 온누리상품권, QR결제 등 가능한 무선단말기 보급('21. 6만개)

- (디지털 상권 르네상스)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, 온라인 판매, 복합 체험판매 라운지를 패키지로 지원('21년 1곳, '22년 2곳 선정)

- (특화거리·온라인판로) 개별점포(업종별) 스마트 기술 도입, 지능형 CCTV 및 사이니지 설치, 상권 특성별 온라인 판로 지원 등
- (플래그십 스토어) 문화, 체험, 제품판매 등이 결합된 복합 매장 구축
- (기존 상권르네상스 운영 혁신) 선정상권에 전문 컨설팅(콘텐츠·디지털 등), 소상인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

- (빅데이터 상권플랫폼) 상권정보시스템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('21.8) 및 민관협의체* 발족('21.11) **뉴딜**

* 유동인구, 소비트렌드 등 소상공인 경영에 밀접한 데이터의 확보 등 지원

- (디지털 간편결제) 온라인쇼핑몰·배달앱 등에 간편결제를 도입·확산하고, 각종 인센티브*를 통해 가맹점을 120만개**로 확대

* 시장경영바우처·특성화시장·스마트상점 선정시 가점, 정책자금 금리우대 등

**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: ('20.12) 73 → ('21) 120 → ('22) 160 → ('23) 200만개

- 해외 관광객이 자국 결제앱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, 글로벌 협업체계 마련('21.상~)

- ❷ (내수 촉진 기반 확충)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(2.5→3조원, 본예산 기준), 「지역상권법」 제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

③ (소비촉진)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입증한 동행세일, 크리스마스마켓에 문화를 접목하여 대한민국 대표 소비축제로 확장 협업
*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, 별도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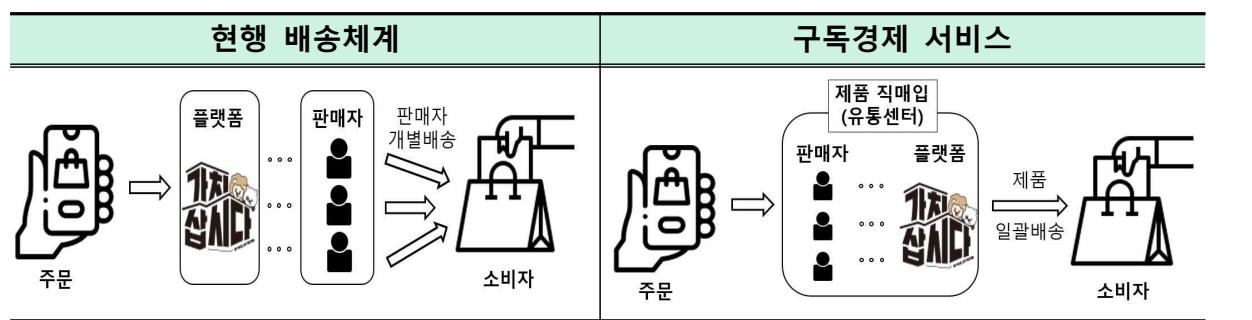
④ (백년가게) 지역문화 연계 우수사례를 발굴·확산*하고, 시설개선·판로지원 전용사업 신설(59억원) 및 백년가게협의회 구성 등 추진
* 지역의 문화·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백년가게의 스토리에 대해 온·오프라인 홍보

⑤ (구독경제 접목) 자상한 기업, 라이브 커머스 등 플랫폼을 활용,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 후 정기 배송하는 (가칭)'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방안' 마련('21.3월)

- 반찬·간식 정기배송 등 소상공인 구독경제 확산을 위해 '가치삽시다' 플랫폼 내 구독경제관 개설 등 시범운영 (1~2개 지역, '21.상)

< 2021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시범운영 추진방향(안) >

· 다양한 뮤음 상품(꾸러미 채소 등)·옵션 구성 및 일괄 배송이 용이한 전통 시장,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기배송 체계 구축
* (1) 전통시장 : 플랫폼과 연계한 근거리 배달서비스 활용 → 구독경제 선제 적용
(2) 백년가게 등 :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한 프레시지(fresh easy) 등과 협업 추진



⑥ (소상공인 온라인 진출)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온라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, 민간 플랫폼 협업 등 판로 다양화 뉴딜

구 분	주요내용
가치삽시다	· '가치 Day' 방송 확대('20. 130→'21. 500회), 소비트렌드 분석 및 판매 컨설팅 제공 등 기능 고도화
민간 플랫폼 협업	·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등 온라인몰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('20. 200회 → '21. 400회), 상품개선 컨설팅 등 연계

기대효과

- 소상공인이 긴급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재기지원·고용보험 등의 안전망 강화
- '25년까지 스마트상점 10만개, 디지털전통시장 500개, 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 등 소상공인·전통시장의 디지털혁신 적극 확산

[2] 벤처·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

개요

- 포스트코로나 시대, 창업붐, 투자붐, 수출붐 등 3대 봄(Boom)을 통해 벤처·스타트업의 디지털·비대면·그린 등 선도형경제의 주역화 추진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디지털·비대면·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붐 활성화

① (디지털·비대면 경제) K-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, K-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벤처 4대강국 구현 **뉴딜 협업**

- (K-비대면)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(25년까지 1,000개) → 성장 및 글로벌화를 촉진하고, 비대면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기반 확충

구 분	주요내용
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발굴·지원	·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, 물류·유통 등 8대 비대면 분야별 스타트업 발굴 및 연계지원('21. 200개)
성장 지원 + 국내 수요 창출	· 비대면·디지털 기술보증 5.5조원 등 성장자금 9조원 공급(~'25년) 비대면서비스바우처 지원, 비대면 분야 공공구매 활성화 등
비대면 혁신벤처 생태계 인프라	·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정의와 육성체계, 규제혁신 등을 규정하는 「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1.1분기)

- (K-유니콘 프로젝트) 아기유니콘* → 예비유니콘 →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**('21.1~)

* 아기유니콘 '21년 지원 규모 확대(40개→60개사), R&D·정책자금·보증·투자 연계지원

** 복수의결권 도입, 스케일업 펀드 조성, 투자·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 운영 등

② (그린 경제)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,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을 통해 그린경제를 주도하는 벤처·스타트업 육성 **뉴딜 협업**

- (그린뉴딜 유망기업)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선정(~'22)하여 R&D, 사업화자금 등 지원 →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 **뉴딜 탄소 협업**

* 그린 분야 예비·초기 창업자를 위한 전용트랙 신설·운영 ('21~) → '25년까지 그린 스타트업 1,000개사 육성('21. 200개)

- (그린 스타트업타운) 지역 혁신자원 및 정주여건을 결합한 지역 친환경 거점을 확대 조성하고, 그린 벤처기업 등 집중 육성 **뉴딜 탄소**

* '21년 1개소 조성 완료(천안) 및 1개소 추가 선정(설계) 추진

③ (혁신 창업 인프라 등 확충) BIG3 및 D.N.A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,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 인프라 확충

- (BIG3) 성장 잠재력을 갖춘 BIG3 분야 스타트업 발굴 → BIG3 펀드(1,500억원) 등을 통해 집중 투자하고 맞춤형 지원* 강화
 - * (예시 : 바이오) 의료현장 애로수요와 중소·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방역물품 기술개발 및 조기 상용화 지원 ('21.1분기~, 신규 89억원)
- (D.N.A) 인공지능 챔피언십 개최 → 우수팀에 창업사업화(1억원), 기술개발(최대 4억원), 기술보증(최대 20억원) 등 연계 지원
- (제조창업)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('21. 상)

④ (청년창업 활성화 등 기반 확충)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등 구축 협업

구 분	주요 내용
청년 창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창업자금 + 지원프로그램 + 창업인프라 등 분야별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체계 마련 * 청년창업사관학교('21. 1,000명),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
청년 일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, 계약학과 확대(5개교 추가)로 자기계발 지원

② 적극적 마중물 공급 등을 통한 벤처투자붐 촉진

① (스마트대한민국펀드) '20년 1.3조원에 이어 '21년 1조원을 추가 조성하여, 비대면·바이오·그린뉴딜 기업에 집중 투자('25년까지 총 6조원 조성 목표)

- (21년 조성방향) 비대면 펀드, 바이오 펀드, 그린뉴딜 펀드, 멘토기업 매칭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조성 추진
- (펀드 활성화 등) 비대면, 바이오, 그린뉴딜 분야별 '스마트대한민국 파트너스 데이' 개최 → IR 피칭, 투자유치 전략 컨설팅 등 연계 지원

② (벤처투자 환경 고도화) 실리콘밸리식 금융 도입을 추진하고,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추진

- (실리콘밸리식 금융) 기존의 제도 内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*(Venture Debt) 제도 등 복합금융 신설('21.하)
 - *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(통상 융자액의 1~2%)을 보유하고,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
- (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등) 벤처투자 표준 계약서 마련·보급 등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('21.상)

③ '브랜드K' 등을 통한 중소·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도모

① (브랜드K)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'브랜드K'의 인지도 제고, 판로 지원 등을 통해 국내·외 입지(브랜드 파워) 강화 협업

- (인지도 제고)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브랜드K 및 제품을 체험, 홍보할 수 있는 ‘플래그십 스토어’를 구축하여 홍보 지원('21. 국내1, 해외1)

* 테마별 콘셉트관, 체험관, 온라인 홍보관 등 결합



- (판로 지원) 브랜드K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판로 종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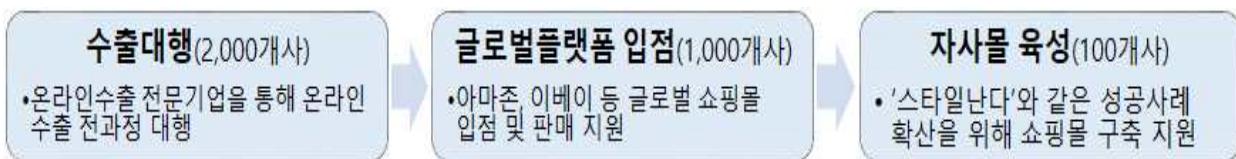
* (해외)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여 확대, 해외 온라인몰 내 한국관 추가 구축 및 입점 지원
(국내) 온라인몰, 홈쇼핑을 통한 지원 확대, 동행세일 등 대규모 판촉 시 홍보관 구축 등

- (맞춤형 전략수립 지원) 빅데이터 기반의 신남방·신북방 국가 시장현황 조사 및 브랜드K 개별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

② (코로나19 대응) K-방역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·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고 해상물류 등 수출애로 해소 지원 협업

- (비대면·온라인) 기업의 수출역량 단계별로 ①수출대행, ②글로벌 플랫폼 입점, ③자사몰 구축·육성 등 수출기업화 지원

< 수출역량 단계별 수출기업화 지원내용(안) >



- (수출애로 해소) 국적해운선사(HMM) 운항 선박에 중소기업 수출 물량을 우선 배정('20.11월~)하고, 운임 보전 지원('21년, 2,000개사)

③ (해외거점 등 연계)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거점 및 ODA(국제개발협력) 활용 기반 조성

- (K-스타트업 센터) KSC파리 신규 개소('21)를 통해 서유럽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지역별 특화업종 선정* 등 전략성 강화

* (싱가포르) 핀테크, 스마트 시티 (스톡홀름) 인공지능, 친환경, (파리) 문화콘텐츠 등

- (ODA) 몽골 올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('21~'23) 등 추진

기대효과

- ‘25년까지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 100개, 비대면 예비유니콘 700개 등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기업 육성
- ‘22년까지 브랜드K 제품 400개 선정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촉진

[3] 디지털화, 저탄소화,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

개요

- 스마트제조혁신, 저탄소공정혁신, 신사업전환혁신 등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 제고 추진
- 규제자유특구, 지역주력산업 등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 추진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인공지능·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화 등 스마트제조혁신

① (디지털화 촉진 인프라) 인공지능 제조플랫폼과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, 제조혁신법 제정 등 기반 확충 **[뉴딜]**

- (인공지능 제조플랫폼) 마이제조데이터 체계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(KAMP^{*})을 단계별로 차질없이 구축

*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: 중소제조기업이 제조데이터를 활용, 설비·공정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·활용 지원

(1단계) 플랫폼 구축('20.11)	(2단계) 솔루션 활용 촉진('21下)	(3단계) 플랫폼 고도화('22上)
스마트공장 데이터의 저장 및 인공지능 분석 등을 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축	→ 인공지능 제조 솔루션의 개발·유통 및 활용을 가속화하는 앱 스토어 운영	→ 데이터 생산·수요자 간 제조 데이터 공유활용·거래를 촉진하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

- (디지털 클러스터) 중소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동종업종, 가치사슬 기업간 협력형 모델을 창출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100개 구축(~'25)

* 개별 스마트공장을 상호 연결하고, 다양한 공동·협업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 (공동물류·판로, 시제품 분업생산 등) 패키지 지원

- (제도적 기반 확충)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혁신 지원과 마이제조 데이터의 체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조혁신법 제정 추진 ('21.상)

② (스마트공장 선도모델)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+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,000개, K-스마트등대공장 100개 구축(~'25) **[뉴딜]**

* K-스마트등대공장 :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업종대표 공장을 선정, 5G+인공지능 융합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선도형 공장 구축 ('21. 10개)

③ 스마트제조 혁신생태계 조성 및 선순환 구조 확충

- (스마트공장 1번가) 스마트공장 구축단계부터 사후관리, 고도화 등 전반을 종합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(21.3월)
- (제조혁신 R&D) 첨단제조, 유연생산 등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한 「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」 기획 ('22~'26년, 정부 3,288억원) 협업

[2] 글록 제조공장의 저탄소 공정혁신 및 신사업전환혁신 기반 확충

① (저탄소 공정혁신 가속화)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·제도 마련

- (탈탄소경영 특별법)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린뉴딜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법 마련 추진(21.1월~)
 - (금융지원) 그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자금 및 총액목표 마련*,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(21.1월~) 탄소
- * (전용자금) Net-Zero유망기업지원 200억원, (총액목표) 0.6조원
- (인식개선)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친환경 분야 실무과정 운영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고 등에서 친환경 분야 우선 지원(21.2월~) 탄소

② (사업전환·재도약) 제2의 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新사업 개척을 지원하고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탄소

- 신생 사업분야 진출(동일 산업분류 내 진출 포함)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(21.하, 사업전환 관련 법령 개정)
- 기업 신청, 금융기관 선별 등을 통해 부실 단계 전 기업(채무 100억원 미만, B등급 위주)에 대한 유동성 공급·컨설팅 등 경영안정화 지원

[3]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기술·신사업 창출 촉진

① (특구제도 안착화) 1·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종료*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, 임시허가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

* 1·2차 특구 39개 사업의 실증특례가 '21년 하반기(8월, 12월)에 각각 종료

구 분	주요내용
법령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안전성 검증 → 법령정비 절차 착수 지원 → 법령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즉시 추진가능한 규칙·고시 개정 등은 신속 추진(관계부처)
임시허가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령정비 안된 경우 입법시까지 사업 중단이 없도록 임시허가 전환 · 임시허가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* 실증특례 기간 연장(6개월~2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타법령에서 명시적 금지, 임시허가 실익이 없는 경우
특구기간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실증에 추가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연장, 재정 추가지원 여부 등을 검토

② (활성화)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사업화 지원 강화 [뉴딜]

- (특구기업 사업화) 실증종료 후 특구·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R&D · 자금 · 판로 등 정책 수단 패키지 지원

③ (신규지정) 디지털·그린 등 국가정책과 연계(Top-down)한 방식을 병행하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('21년 2회) [뉴딜]

<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패키지(안) >



- (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) 저탄소·친환경 특구를 '25년까지 20개로 확대 → 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 기술 실증 등 선도적 역할 수행 [탄소]
 - * 현재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,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, 강원 액화수소 등 11개 기 지정

이산화탄소 자원화 (울산)	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콘크리트, 고무 등 건설·화학소재로 제품화	
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(경북)	전기차 운행 거리에 따른 폐배터리 성능 평가, 배터리 재사용·재활용 등을 위한 실증 추진	

4] 지역주력산업 · 지역선도기업 육성 등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

① (지역 산업·기업)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전면개편*에 따라 선도기업 육성, 대표 프로젝트 추진('21.1분기) [뉴딜]

* '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'('20.11.26일, 경제중대본)
→ 디지털(20개), 그린(19개), 고부가가치화(9개) 산업으로 개편·획정('20.12.29일)

- (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) 시·도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('21~'22) → R&D,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
- (지역 대표 프로젝트)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경제를 선도 할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 발굴·추진('21.2월~)

**② (지역 벤처·창업) 지역의 벤처·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
마중물 공급 등 지역 벤처·창업 생태계 고도화('21.1분기) 뉴딜 협업**

- (지역뉴딜 벤처펀드) 지역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이 앵커출자자로 참여하는 권역별 펀드 조성('21.1월~)
- (지역 엔젤투자허브) 엔젤투자 확대(초기 창업기업 투자)를 위해 창경 센터 등과 협업하여 '지역 엔젤투자허브' 구축·운영('21년 2개)
- (창업 생태계) 지역의 자연적·문화적 특성에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(로컬크리에이터) 육성·발전 전략 마련('21.3월)

⑤ 현장수요와 뉴노멀에 대응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

① (현장수요) 내수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B2B, B2G 지원 강화

구 분	주요 내용
B2B	· 기업간 거래 연결을 위해 B2B 매칭플랫폼을 설치하고 가치삽시다 등 · 공적 온라인플랫폼에 B2B 전용몰 운영('21.상)
B2G	· 데이터 기반 우수제품 발굴 등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촉진 * 공공구매종합정보망 - 동반성장몰 연계('21년 계획수립 → '22.上 시스템 연계)

**② (뉴노멀 진출)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몰 통합관리 지원을
고도화하고, 구독경제 적합 상품에 대한 정기배송 지원 등('21.상)**

**③ (공공구매제도 혁신) 비대면·디지털 등 유망분야 공공구매 활성화를
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개편('21.2분기) 등 공공구매제도 혁신**

-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'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' 제도 도입('21.1월 시행)

기대효과

- '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구현
- '25년까지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20개 구축 등을 통해 중소 기업의 저탄소 공정혁신 가속화

[4] '연대와 협력'으로 상생경제 확산

개요

-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하고, 자발적 상생 협력기업 발굴 및 사업영역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
-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상생경제를 확산하고, 노동정책의 중소기업 현장안착 적극 지원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기반 확충 협업

- ❶ (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)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모범적 모델을 발굴·확산 추진
- ❷ (사업영역 보호) 대·중소기업간 자율협의 유도 및 사업영역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

- (상생협약 유도)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나 강제조정 권고에 앞서 대·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우선 추진하여 갈등 최소화
 - * (실태조사) 자율협약 이행 여부 실태점검을 통해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
- (제도적 보완)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
 - * (보호공백 최소화)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 진행 중(지정前)에도 소상공인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권고 등 보완방안 마련

- ❸ (상생협력 기반 확충)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('21~'25년), 동반성장 평가체계 개선 등 상생협력 기반 강화 협업

② 혁신 분야 자상한기업 발굴 및 소재·부품·장비 상생협력 등 강화 협업

- ❶ (자상한기업) 비대면·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 → '자상한 기업' 협약 체결
 - * 자상한 기업 발굴 현황 및 목표(누적) : ('19) 10개 → ('20) 25개 → (**'21목표**) 35개
- (성과확산) 협약 기업·단체간 입체적 교류협력 강화, 협약 이행사항 점검,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·홍보를 통해 성과 확산

② (소부장 상생협력) 대·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 확대를 위해 R&D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고,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*

* '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'를 통해 친환경 관련 소부장 국산화 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(21.상)

- (소부장 창업·성장) 소부장 '스타트업 → 강소기업 → 유품기업'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하고 전용사업 신설 등 지원 강화

* 강소기업 전용 R&D 신설(21년 125억원), 스타트업100 스케일업 지원 등

[3]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촉진

-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 운영(21~)

* ('20년) 17개 대기업 + 320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,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 및 대기업-스타트업 협력체계 조성



- (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확산) 벤처창업 생태계 중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, "민간 주도·협력형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지원시스템"으로 확장을 위한 5대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핵심체계 구축(21.상)

< 2021년도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– 5대 핵심체계(안) >

① (혁신경제) 혁신·도전적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강화
② (프로토콜경제) 대스타-해결사 플랫폼을 통한 프로토콜 경제 구현 모델 및 주요 과제 발굴
③ (서민경제)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서민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모색
④ (공정·상생경제) 자상한기업 중심으로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확산하여 상생협력 촉진
⑤ (조달경제)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중소벤처기업 공공조달제도에 접목하여 혁신 가속화

-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체계적·지속적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(21.상), 모델 다양화 및 상시 문제해결시스템* 구축

* 문제접수시스템 운영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 상시 발굴

④ 플랫폼과 동행하는 프로토콜(Protocol) 경제로 공정한 혁신생태계 구현

- ① 프로토콜 경제의 기본원칙^{*}을 토대로 플랫폼노동자·전통산업·공유경제·블록체인 기반기술 등 4대 선도모델 정립(21.1분기)

* 3대 기본원칙 : 정보 분산(탈중앙, 분권형) + 중개비용 최소화 + 합의된 규칙

< 플랫폼노동자와의 상생 모델 >	< 전통산업과의 상생 모델 >
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전제로 운송노동자 등 각 노동자와 상생하는 모델	음식점, 숙박업 등 전통산업과 소비자를 최소의 수수료로 연결하는 모델
< 공유경제 활성화 모델 >	< 블록체인 기반기술 관련 모델 >
사람과 사람 간의 시설·물품 공유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모델	블록체인 합의 및 데이터 관리 등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는 모델

- ② 벤처·스타트업의 프로토콜 선도모델 사업화 패키지 지원(21.1분기)

- (창업·사업화 지원) 4대 선도모델 관련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·사업화 지원 전용 트랙 신설

* 유망 스타트업 선발부터 교육·멘토링, 사업화자금(최대 1억원) 등 연계 지원

- (성장 지원) 4대 선도모델 구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,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고,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충

* (정책자금) 선도모델 구현기업 등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용자금 신설(21.상)
(글로벌화) 싱가포르·스톡홀름 스타트업 센터를 블록체인으로 특화하여 운영(21.2분기)

- ③ 프로토콜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시범추진

- (민간 주도·협력 촉진) '21년도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프로토콜 분야를 포함하고, 관련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 발굴

*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스타트업을 선발 → 사업화·기술개발 등 지원(최대 25억원)

- (데이터 개방 → 프로토콜 창업)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개방하여 프로토콜 창업 촉진(21.하)

- ④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경제 등 프로토콜 모델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

-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의 사례를 토대로, 스테이블 코인^{*} 등 가상자산 관련 실증 및 참여기업 대상 R&D, 투자 등 연계 지원 검토

* 스테이블 코인(Stable coin) : 화폐,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

→ 프로토콜 경제 4대 선도모델 구현을 위한 패키지 지원, 보상체계, 법적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(가칭)'프로토콜경제 발전전략' 마련(21.상)

※ 2021년 경제정책방향 기 반영 과제

[5] 주요 노동이슈 중소기업 현장안착 맞춤형 지원 협업

- ❶ (주52시간제) 관계부처, 중소기업 협·단체 등과 협업하여, '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' 구성 →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1:1 맞춤형 정책 연계
- ❷ (안전한 기업현장 조성)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, 산업재해 예방 교육·컨설팅 강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

기대효과

- '연대와 협력'이라는 새로운 상생정신이民間에 확산되고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

[5] '현장·소통 중심' 적극행정 구현

개요

- 현장·소통 중심의 성과점검, 국민추천제 활성화 등 '현장·소통 중심'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- ❶ (현장·소통 중심의 성과점검)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, 현장 안착여부 등 점검·확인
- ❷ (국민추천제 활성화) 당사자가 지원사업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함께,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 추천 병행(적용 사업 : ('20) 10개 → ('21) 15개)
- ❸ (캐주얼데이 운영)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「캐주얼데이(Casual Day)」로 지정·운영('21.3월)

*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

기대효과

- 「현장의 목소리 → 정책·제도화 → 국민체감」으로 이어지는 중기부의 혁신적인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확산

IV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① 소상공인의 경영이 회복되고, 스마트상점·전통시장이 나타납니다

- (소상공인) 소상공인의 경영이 회복·안정되고 '21년 스마트상점 2만개 (~'25. 10만개), 디지털전통시장 100개(~'25. 500개) 등 디지털 전환으로,
 - 영업시간 단축 등 삶의 질 향상 및 심야 추가 매출로 수익성 제고
 - * 동네슈퍼 평균 영업시간 : 16시간 25분(개점 07:23~폐점 23:48)
 - * (스마트슈퍼 1호점 "형제슈퍼") 심야에는 무인점포로 전환되며, 일평균 매출 32.6%, 심야 매출(21시~07시) 53.1%증가
- (고객 등 일반국민) 동네슈퍼, 동네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로 온라인을 통한 배달주문과 모바일 결제 등 편리하게 쇼핑

②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타나고, 대한민국이 세계 벤처4대강국 진입으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합니다

- (벤처·스타트업) 줌(Zoom) 및 페이스북(Facebook)과 같은,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·비대면 기반의 혁신기업 육성
 - * 목표(안) :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(~'25. 100개), 비대면 예비유니콘(~'25. 700개) 등
 - 유니콘 증가 등 벤처·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로 '벤처 4대강국' 실현
- (일반국민) 디지털·비대면 혁신 벤처·스타트업에서 일하고, 대한 민국 유니콘기업이 만든 글로벌 플랫폼을 사용
 - * '25년까지 혁신벤처·예비유니콘 육성을 통해 약 16만개 일자리 창출
 - ** (참고)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, 72.3%가 스타트업으로 이직 의향 있다고 응답('20.10, 잡코리아)

③ 지역에서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고 전통중소기업이 성장합니다

- (지역 전통중소기업) 지역별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·도전적 신기술을 개발하고, 브랜드K를 통한 글로벌화 추진
 - * '21년까지 규제자유특구를 30개 이상 지정 목표('20년 누적, 24개)
 - * 브랜드K : ('20) 133개 제품 → ('21) 213개 제품 → ('22^e) 400개 제품
 - '21년 스마트공장 약 2.4만개 보급(누적, ~'22. 3만개)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구현
- (일반국민) 지역 전통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혁신함에 따라, 지역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는 것을 체감

별첨 1**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**

국정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㉗ 더불어 발전하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·중소기업간 사업영역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·지정 2건*, 자율협약 5건** 등 갈등 최소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수, 냉면 ** 오프셋인쇄업, 전통떡, 도시락, 막걸리, 화초소매 ○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교섭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간·비용부담이 큰 수위탁 분쟁 사건을 민·관협의체*를 통해 자율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생조정위 : 중기부, 공정위, 대검찰청, 경찰청·특허청, 민간위원 등 총 17명 ○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·공공기관 등 106개사 1,992개 협력이익공유 과제 발굴·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19) 56개사, 561과제 → ('20) 106개사, 1,992개 과제 ○ 대·중소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*, 스타트업 20개 선정하여 R&D 등 종합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5년간 각각 최대 182억원 지원(정책자금 100억원, 보증 30억원, R&D 20억원 등) - 대중기 상생협의회로 '상생모델' 8건 발굴 ○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·확대*로 122조원 규모** 민간협력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19년 10개 → '20년 25개(누적) ** 금융지원(98.7조원), 투자지원(21.4조원), 판로확대(1.6조원), R&D·사업화 등(0.2조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업종(8종) 정기 이행점검 -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의 보호공백 보완 - 직권조사 확대 및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 성과 확산 추진 -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(상생협력법 개정) - 협력이익공유 우수사례 발굴·확산(~'22, 200개사) - 소·부·장 스타트업 확대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20) 20개 → ('24) 100개 - 소·부·장 상생모델 확대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20) 8개 → ('24) 50개 - '자상한 기업' 지속발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21, 누적) 35개 - 성과확산을 위한 이행 점검 및 우수사례 홍보
㉘ 소상공인·자영업자 역량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누리상품권 발행·판매 규모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발행) ('19) 2.0조원(본) → ('20) 4.0조원(본+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* (판매) ('19.10) 1조 5,024억 원 → ('20.10) 3조 3,813억 원(전년比 125% 증가) ○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진기금 규모 확충* 및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.15조원 → 9.67조원 -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온라인 역량강화, 진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(4만개사) 및 종합인프라 구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판매 활성화 ('21년 본예산 3.0조원) - 자금애로 해소 및 온라인·디지털화 지원*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온라인진출 역량강화, 구독 경제 등 지원 추진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점가 육성 및 보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점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0년까지 20곳 선정 - 골목형상점가 정의·지정 절차 등 마련('20.8.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) ○ 소상공인·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상공인 '새희망자금' 신설·지급 -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87만명, 고용보험료 8,184명 지원(~'20) ○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를 위한 간편 결제 전국 활성화 - 착한선결제 봄 조성,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권 르네상스 사업 신규선정(5곳 내외) - 지자체별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·개정 추진('21.9.0곳) -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-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및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- 간편결제 성장 촉진, 착한선결제 및 임대인 운동 지원 강화
⑨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투자 관련 제도 정비* 및 코로나 상황 속 펀드결성액** 증가세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벤처투자촉진법 제정('20.8월 시행) ** ('19) 4.24조원 → ('20) 6.57조원(약 55% ↑) ○ 혁신창업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* 및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정책자금(억원)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'18) 44,150 → ('19) 43,580 → ('20) 62,900 ○ 창업기업의 성장(Scale-up) 촉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·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20, 시범사업) 100개사 ○ 재도전 인프라 확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대보증 및 부실채권 단계적 정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연대보증 면제(조원) : ('19) 15.3 → ('20.11) 23.1 * 부실채권 정리(조원) : ('19) 1.2 → ('20) 1.2 -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(중진공·캠코·서울보증) 신규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20) 50개사 350억원 용자, 보증발급 70건 - 재창업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재창업자금(억원) : ('19) 900 → ('20) 1200 * 재기지원펀드 176개사 2,555억원 투자('20.10) ○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-유니콘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CBinsights 기준 11개(세계 6위)이나, 국내 투자현황 등을 통해 2개사 추가 파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태자펀드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1년 모태펀드 총 1.5조원 출자, 3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추진 -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술창업자수 (누적, 만명)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('20) 4.47 → ('21) 5.6(목표) -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본격 발굴·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21) 200개사 - 재창업 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등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재창업자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17~20년 누적) 4,282명 → ('22년 누적) 5,500명 -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 및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0년 1.3조원 조성 ('20~'25, 6조원 조성 목표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 * 특구내에서 1,255개 일자리 창출, 6,757억원 투자유치, 162개 기업 유치 등의 효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증 종료에 따른 특구 안착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속한 법령정비와 임시 허가특례연장 등 추진 - 한국판 뉴딜분야 규제 자유특구 신규지정 확대
<p>④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효율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기업 단위 중소기업기본통계' 국가 통계 승인으로 정책기반 확보(20.8.) ○ 중소기업 R&D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전용 R&D 예산 확대를 통해 2조 3,069억원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R&D 2배 확대 목표(2조 1,670억원) 조기 달성 ○ 공공구매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(837개) 대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10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총 구매액인 135조 원의 77.8% (전년 대비 11.7% 증가) ○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브랜드K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역량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가대표 중기제품 공동브랜드(브랜드K) 개발·육성(120개 지정, '20년 누적) * 온라인·비대면 방식 지원 확대 및 코로나 19 유망 품목 집중 지원 등 ○ 위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」 수립·추진('20.1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역주력산업 48개를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개편하고 집중 육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부처 사업 성과분석 - 기업통계 등록부(SBR) 품질 개선 - 스마트 서비스 도입 지원 지속(150개사) -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지속 확대 - 공공조달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- 국가대표 브랜드K 마케팅 지원 강화(62억원) - 비대면·온라인을 통한 수출 촉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온라인 수출 단계별 지원 강화, 물류 지원 고도화 등 - 도심 역세권,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 경영 환경 개선 및 그린 스마트화 추진(190억원)
<p>④1 대·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가 고용제도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,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청년추가고용장려금('20년 신규 105,539명), 청년내일채움공제('20년 신규 132,000명) ○ 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14,342명 인력 양성 (목표 13,500명 대비 106.2% 달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중소기업 상생형 계약학과 신설(3개), 영마이스터 전문학사 개설(총 4개) ○ 중소기업-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공유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홍보, 교육, 컨설팅 등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성과공유기업('20.11월) : 51,194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9만명,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 - 인공지능, 데이터 기반 신산업·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확대(1.4→1.7만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산학협력(14,960명), 계약학과, 중소기업연수원 등(1,940명) - 우수기업 홍보 등 중소기업 성과공유 문화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성과공유기업 7만개 달성

“우리의 일상을 바꾼 비대면 혁신 벤처·스타트업”

- 서울 원룸에서 혼자사는 1인 가구 김씨는 얼마전까지만해도 빨래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다. 최근 후 늦은 시간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고민, 드라이 크리닝을 해야하는 옷들을 제때 세탁 못하는 것도 고민이었다.
- 그러다 며칠 전,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스타트업 R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든 고민이 없어졌다. 이 비대면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 그리고 문밖에 빨래를 놔두기만 하면,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 다시 집 앞으로 배송되기 때문이다.
- ‘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200 사업에 선정된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R사는 ‘19.3월 서비스 런칭 이후 235억원 투자유치, 1년 6개월만에 1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. ’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「K-비대면 글로벌 혁신 벤처 100 프로젝트」를 통해 비대면 혁신 벤처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.

“스마트공장으로 K-방역 세계화에 도전하다”

- A사는 2020년2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빨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다. 그러나 해외의 진단키트 주문 폭주에도 불구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으로는 물량을 맞추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.
 - 이에, 긴급히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였고, 100% 국산 기술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여 생산성 증가율 1,233%라는 획기적인 성과*를 올렸으며,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, ‘19년 대비 10배 이상 매출을 올렸다.
- * (도입효과) 생산성 증가율 1,233%(주당 3천키트→4만키트), 라벨부착시간 감소율 80%(20hr→4hr), 검사시간 감소율 86%, 재고관리 정확도 증가율 25%p, 물류동선 감소율 34%
-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하여, ’22년까지 누적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.

“3시간 만에 입금, 속도에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”

-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수도권 내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받았다. 매출이 2020년 10월에 50%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12월부터는 아예 수입이 없어졌고, 월 110만원씩 나가는 임차료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다.
-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B원장은 정부가 베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신청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을 한 후 크게 놀랐다. 베팀목자금을 신청한지 불과 3시간 만에 3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.
- B원장은 “최근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우울했는데, 베팀목자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. 무엇보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한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다”라고 밝혔다

“스마트슈퍼로 바꾸니, 매일 아침 보너스 받는 기분입니다”

- 아내와 함께 둘이서 조그만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60대 소상공인 최씨는 스마트슈퍼*로 전환한 뒤,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다.
* (스마트슈퍼) 무인 출입장비, 무인 계산대,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·장비를 도입하여 낮에는 유인,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
- 주인이 퇴근하고 없는 심야시간에는 신용카드로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고른 후 스스로 계산대에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비대면 소비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20~30대 손님들이 많아져 이용고객층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었다.
- 이 동네 슈퍼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하루 평균 매출이 32.6% 증가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‘20년 시범 운영한 5개 스마트슈퍼의 성과를 바탕으로, ’21년부터 연간 800개 동네슈퍼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.